

전남 서부권

가뭄 극복하고 환경 되살리고

신안군 '생태 둠벙' 204개 판다

330㎡ 이하 소규모 ... 4억원 들여 조성

신안군이 가뭄 극복과 생태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 여건에 알맞은 330㎡ 이하의 '소규모 생태둥벙'을 조성한다.

어 12월 말까지 4억원을 들여 흑산면 을 제외한 13개 읍면에 204개의 둠벙 을 조성할 계획이다.

의 가뭄을 극복하고, 수생생물로 생태계를 복원하게 된다. 둠벙 주변에는 나무와 꽃을 심어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등 일석이조 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사업성과 평가에 따라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군과 기상청 관계자들이 최근 신안군 하의면 옥도를 방문해 일제강점기 기상관측소터를 답사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민원 마일리지 제도 도입

무안군,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 행정개선

무안군이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에 발 벗고 나섰다.

와 처리기한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매일 민원사무처리 상황을 점검·분석해 군수에게 보고하고 있다.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진도서 개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진도에서 협의회(사진)를 갖고 도서지역 지자체의 각종 개발규제 완화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협의회에 참석해 10개 자치단체 기획(감사)실장 등은 중앙정부 건의사업 25개 항목에 대해 '협의회' 명의로 공문을 발송, 각 정당의 제18대 선거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고,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에도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세계발 전략사업 공동연구용역'에 대한 작수 보고회를 갖고 연구의 방향 과 연구과제의 접근방법, 회원 지자체 협조사한 등을 논의했다.

무안군은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부서별 민원사무처리 이행실태 를 조정·통제하는 자체 점검기능을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군은 종합 민원실장을 민원 심사관 으로 지정해 매주 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 예고제를 실시 하고 있고, 처리기한 경과 민원사무 에 대해서는 실·과장에게 즉시 독촉 장을 발부하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무안=김민준기자 jun@

근대 기상관측 발상지 신안 옥도 복원

1904년 관측소 설치했다 1906년 목포 이전

해상 파고 측정해 기상특보 자료 활용 계획

한국 근대 기상관측 발상지인 신안 군 하의면 옥도가 복원된다.

무기도 해상, 하의면 옥도 해상에 설치된 파고 부이 2개소에 측정된 자료를 기상특보 발표에 사용하고 있다.

복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하의면의 부속 섬인 옥도(玉島)는 섬 모양이 '옥(玉)' 자처럼 생겼다.

대한제국기에 일본은 옥도 주변 해역을 '팔구포'라 부르며 일본해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최근 옥도의 기상관측 복원을 위해 기상청 관측기반국장을 비롯한 광주 지방기상청장 등 관계자들이 신안군 을 방문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답사를 진행했다.

현재의 평균수역을 ▲시하도 해상 ▲다이아몬드 제도권 해상 ▲자은도 북부해상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특성에 맞도록 기상특보를 발표해 지역민 들의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

옥도에 설치한 제2 임시 관측소는 1904년 3월 25일부터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해 1906년 4월 목포로 이전하기까지 관측활동이 이뤄졌다.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 시설 사용 못한다

목포항만청, 강행 조치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앞으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시설 사용을 못하게 할 방침이

다. 목포 항만청은 그동안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 자들의 애로사항을 고려, 독촉 등을 이용한 자진납부를 유도해 왔다.

스런 폐업 또는 잠적으로 사전 압류 등을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는 이를 징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북 쌀 생산량 32년만에 최저

62만2181t ... 전년보다 9.1% 줄어 재배 면적 감소에 태풍 피해 겹쳐

전북도내 쌀 생산량이 3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일 전북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올해 쌀 생산량이 벼 재배면적 감소와 태풍 등의 피해로 전년보다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81t으로 전년도의 68만4000t 보다 6만2038t(9.1%) 줄었다. 연간 생산량 으론 1980년 이래 가장 적은 규모다.

재배 면적이 전년(13만696ha) 보다 0.3% 감소한데다 출수기와 등숙 초기 때 잇따라 발생한 태풍(볼라벤·텐빈)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백수(白穗=벼 이삭마름)피해' 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북=김철수기자 knews@



고창 복분자 음료 '호시노베리' 일본에 40억원 어치 수출

고창 복분자연구소는 전북 복분자 식품사업단과 공동으로 복분자 음료를 개발, 일본에 40억원 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서 마실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밸런스 이민호 씨가 연구개발부터 용기 디자인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고창군 무장면 주민들과 영선고 학생들이 지난 19일 일제 강점기 말살했던 '무장 칠거리 용당기 놀이'를 재연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일제 강점기에 말살됐던 고창 민속놀이 '무장 칠거리 용당기 놀이' 복원

일제 강점기 말살됐던 고창지역 민속놀이가 재연됐다. 고창문화원은 영선고등학교와 공동으로 지난 19일 고창군 무장면 소재지 일원에서 '무장 칠거리 용당기 놀이'(이하 용당기 놀이)

재연행사를 가졌다. 이번 재연행사에는 민복을 착용하고 용신과 당신을 상징하는 깃발을 든 영선고 학생들과 무장 칠거리당산 보존위원회, 무장농악단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고창문화원은 '항토사 대중화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 전승 맥이 끊겼던 용당기 놀이를 이번엔 복원했다.

/고창=김철수기자 knews@

군산 서리태 금상

전국 으뜸 농산물 한미당 특작류 부문

군산지역에서 생산된 서리태(검정콩)가 최근 경기도 성남 하나로클럽에서 열린 '제21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미당행사'에서 특작류 부문 금상(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각 시·군 으뜸 농산물 중 6개부문(곡류· 특작류·과일류·채소류·화훼류·특별품목)으로 나눠 농산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비교평가하고 시상했다.

/군산=박금석 전북취재본부장 nogusu@

단신

전주 백제 로타리클럽 장애인시설 후원금

전주 백제 로타리클럽(회장 정병규)은 최근 전주시 삼천동 소재 장애우 주간보호시설인 '전주 베다니'를 방문해 매달 20만원의 후원금과 함께 겨울 겹장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9월에도 지구 보조금사업으로 '전주 베다니'에 대해 디지털 복합기(260여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남원 사는 일본 여성들 위안부 문제 사죄문

남원에 사는 일본 여성들이 지난 18일 남원 교육문화회관 앞 한일운동 기념탑에서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는 사죄문을 발표했다.

며 "순결을 빼앗고, 가족과 고향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았던 것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사 전국 서화대전 임윤복씨 종합대상

최근 열린 '제20회 정읍사 전국 서화대전'에서 '추억여행(한국화)'를 출품한 임윤복씨가 종합대상(국회위원장상)을 차지했다.

문수씨 '퇴계선생 시'(예서)가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 ▲우수상(정읍시장·시의장상)은 박점복씨 '소나무'(문인화)와 박순덕씨 '고귀한 사람'(문인화), 임창정씨 '등향로부'(예서), 송영선씨 '천왕봉'(행초서)이 차지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군산시 22~24일 김장채소 직거래 장터 개설

군산시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근대역사 박물관 옆 고풍에 '2012 김장채소 직거래 장터'를 개설한다.

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군산시 절임 배추 작목반 협의회는 절임 배추를 당일 직접 판매하거나 예약 주문을 받아 김장 하루 전에 배달해주는 '절임 배추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배추·무는 물론 고추·감·부추 등 양념채소, 새우젓·멸치액젓 등의 젓갈류를 읍·면별로 설치된 판매부스

를 운영한다. /군산=박금석 전북취재본부장 nogusu@